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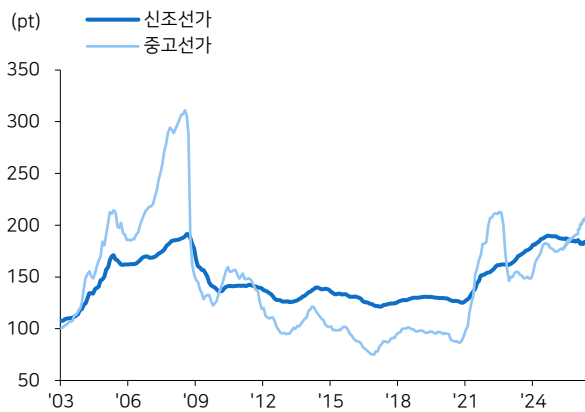


2026. 5. 11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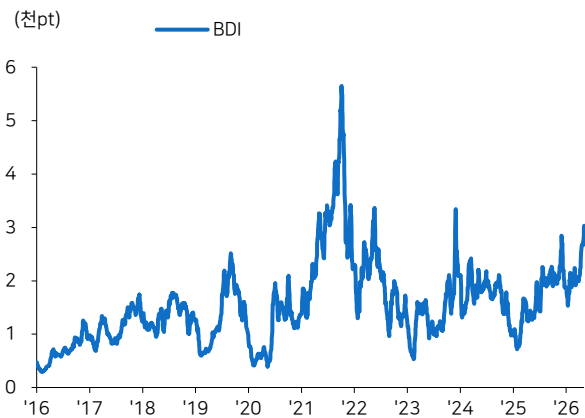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4p (+0.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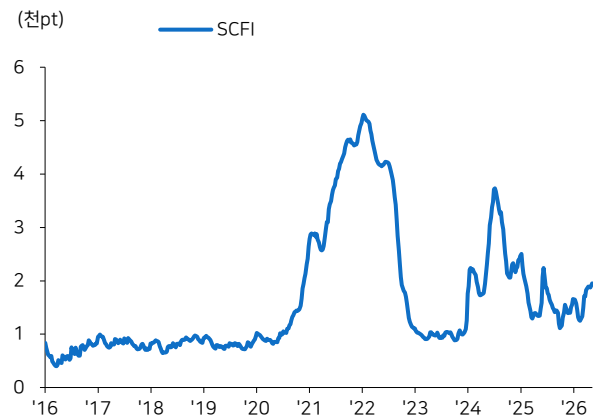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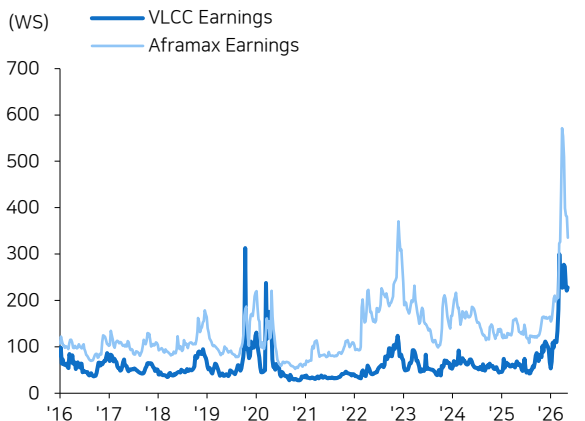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34.0p (+4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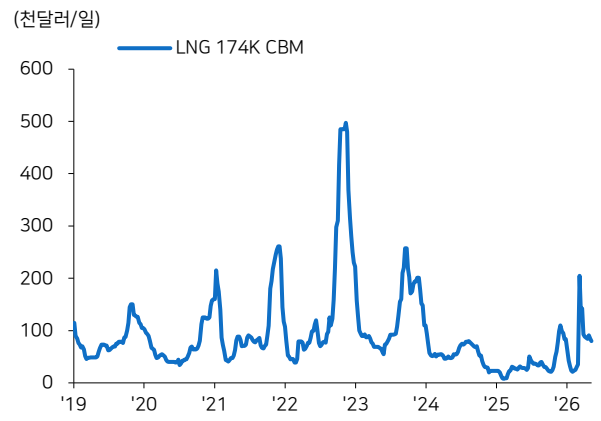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54.2(+42.8 WoW)



VLCC Spot Rate 227.8WS (+7.0p WoW)



LNG Spot 운임 80.0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거점' 세운다...한미 '맞손' 첫 단추 (한국경제)

<https://zrr.kr/L0WjNZ>

한국과 미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현지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됨.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상무부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합의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해짐. 양측은 신설될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및 직접투자를 촉진하여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https://zrr.kr/KvqnaQ>

서울중앙지방법원이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자료 중 일부 항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금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청이 연구개발 효율성을 위해 정부 소유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해짐. 이번 판결로 당사청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적용 중인 보안 감점(12월 6일 종료 예정)과 맞물려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주전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짐.

HD현대중공업, 페루 잠수함 연내 건조 계약 체결 '재확인' (더구루)

<https://zrr.kr/CfOdZ3>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을 위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며, 연내 건조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1,500톤급 중형 잠수함 모델인 'HDS-1500'을 기반으로 페루 측 요구에 맞춘 최적화 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여 선도함 건조 계약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짐. 이번 사업은 페루 정부 교체 등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발판 삼아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짐.

'CPSP 경쟁력 확대' 한화오션, 美 핵추진 잠수함 부품공급 업체와 동맹 구축 (더구루)

<https://zrr.kr/bCY5y5>

한화오션이 캐나다의 Thordon Bearings과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CPSP)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북미 해군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보도됨. Thordon Bearings은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및 캐나다 왕립해군 호위함 등에 소음이 적은 친환경 '오일프리 베어링'을 공급해 온 전문 기업으로, 한화오션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잠수함 건조 시 현지 부품 활용 비중을 높여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짐.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CPSP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화오션은 현지 기업들과의 팀 협약뿐만 아니라 원주민 주도 인프라 개발 참여 등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수주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알려짐.

청와대, 국내 조선소 MRO 사업장 보안 대책 회의...美 "기밀 유출 우려" (조선일보)

<https://zrr.kr/AiSeXi>

국내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현장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민관 합동 보안 대책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보도됨.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국내 조선소 내 MRO 작업 중인 미군 함정 인근으로 중국 및 러시아 국적 선박이 통행하는 모습을 확인한 미 승조원이 본국에 기밀 유출 가능성을 보고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짐. 업계에서는 미 해군 측이 보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향후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RO 시장 수주 및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알려짐.

Greek owner SteelShips doubles product tanker orderbook in South Korea (TradeWinds)

<https://zrr.kr/d7b0Ge>

그리스 선사 SteelShips가 한국의 케이조선에 5만 톤급 MR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추가 발주하며 신조 투자를 확대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2028년 인도를 목표로 하며, SteelShips는 이미 동일 조선소에 2027년 인도 예정인 MR 탱커 2척을 발주해 둔 상태로 전해짐. 해당 선박들은 LNG 및 메탄올 추진 준비 사양으로 건조될 예정이며, 척당 가격은 약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SteelShips는 최근 수년간 케이조선에 발주했던 신조선들을 그리스 SeaWorld Management나 싱가포르 Pacific Carriers 등에 전매하며 수익을 창출해 왔으며, 이번 추가 발주를 통해 주력인 벌크선 외에 탱커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